

최근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과 시사점

2024. 4.

◀ 목 차 ▶

1. 서비스업 설비투자 현황 및 국제비교 / 1
 - 가.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 현황 / 1
 - 나.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국제비교 / 2
2. 세부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현황 및 국제비교 / 4
 - 가. 세부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현황 / 4
 - 나. 세부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국제비교 / 6
3. 서비스업 설비투자 부진 원인 및 시사점 / 8

1

서비스업 설비투자 현황 및 국제비교

가

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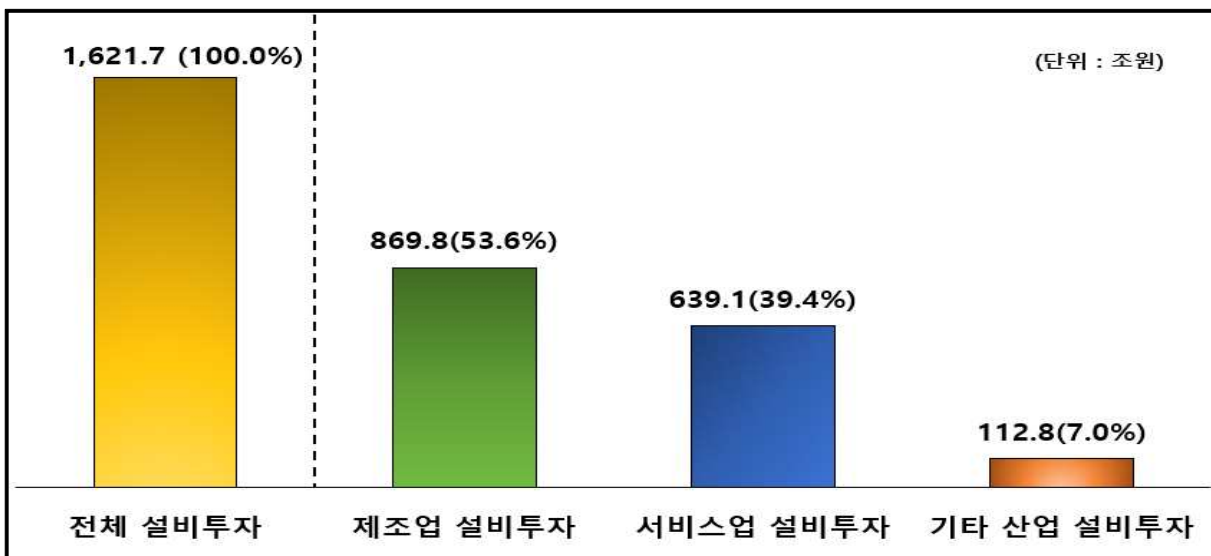
□ 지난 10년간(2013~2022년) 우리나라 서비스업 설비투자(누적 기준)는 총 639.1조원* 규모로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(총 1,621.7조원)의 39.4%를 차지.

*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하는 국민계정 서비스업 설비투자액(명목 기준)을 2013~2022년까지 각 연도별 투자액을 합산하여 집계한 누적 투자액임.

○ 지난 10년간(2013~2022년) 우리나라 서비스업 설비투자(누적 기준)는 총 639.1조원으로 전체 설비투자(총 1,621.7조원)의 39.4%를 차지.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의 절반 이상(53.6%)은 제조업(869.8조원)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.

○ 농림어업, 광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, 건설업을 포괄하는 기타 산업의 설비투자는 동기간 총 112.8조원(전체 설비투자의 7.0%)을 기록

〈그림1〉 우리나라의 10년간('13~'22년) 총 설비투자 및 산업별 설비투자 규모(누적)



주 : 1) 기타 산업은 농림어업, 광업, 전기·가스·수도사업, 건설업 설비투자의 합계임.

2) 괄호안은 전체 설비투자 대비 비중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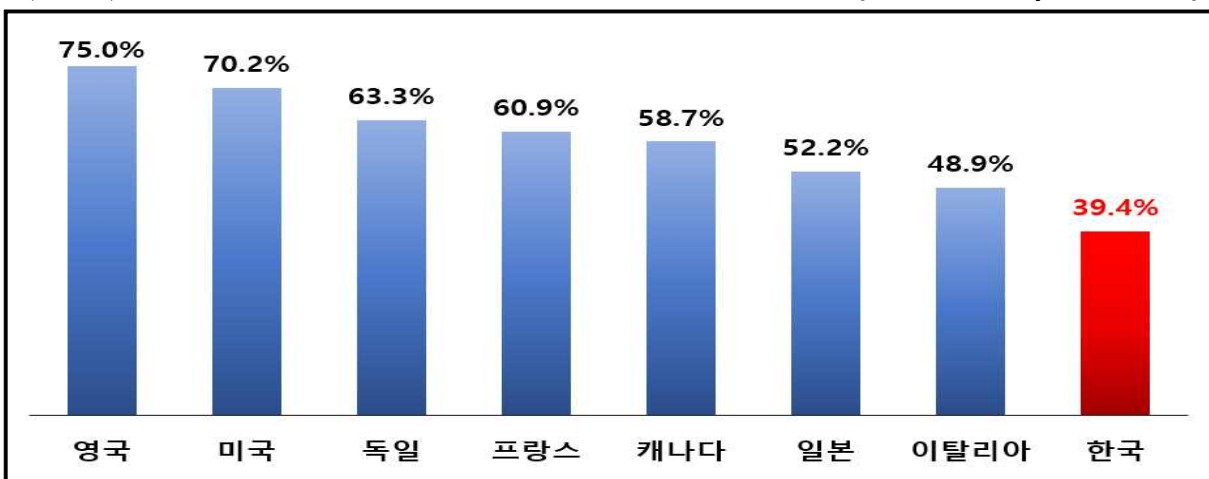
나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국제비교

- 현재 OECD는 국제표준산업분류(ISIC) 기준에 맞춰 다른 회원국들의 업종별 설비투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통계는 발표하고 있지 않음. 우리나라의 업종별 설비투자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기준에 맞춰 발표되고 있음. 두 분류 기준은 하위 분류에서 일부 상이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, 대분류 항목은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비중과 각 세부 업종별(대분류 기준) 설비투자 비중의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(보고서 p.15 참고)
- 동 분석은 국민계정의 명목 기준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통계를 활용하여 비교함.
- G7 국가의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국제표준산업분류(ISIC Rev.4)의 서비스업 세부 업종 G(도매 및 소매업)~U(국제 및 외국기관)의 합계로 산출.

□ **(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)** 이러한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은 G7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. 지난 10년간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은 우리(39.4%)가 모든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.

- 지난 10년간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비중은 우리나라(39.4%)가 영국(75.0%), 미국(70.2%), 독일(63.3%), 프랑스(60.9%), 캐나다(58.7%), 일본(52.2%), 이탈리아(48.9%)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

〈그림2〉 국가별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(최근 10년간, 누적 기준)



주1: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은 전체 누적 설비투자에서 누적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임.

주2: 독일, 프랑스, 캐나다, 일본, 이탈리아는 '13~'22년 누적 기준, 미국은 '12~'21년 누적 기준, 영국은 '11~'20년 누적 기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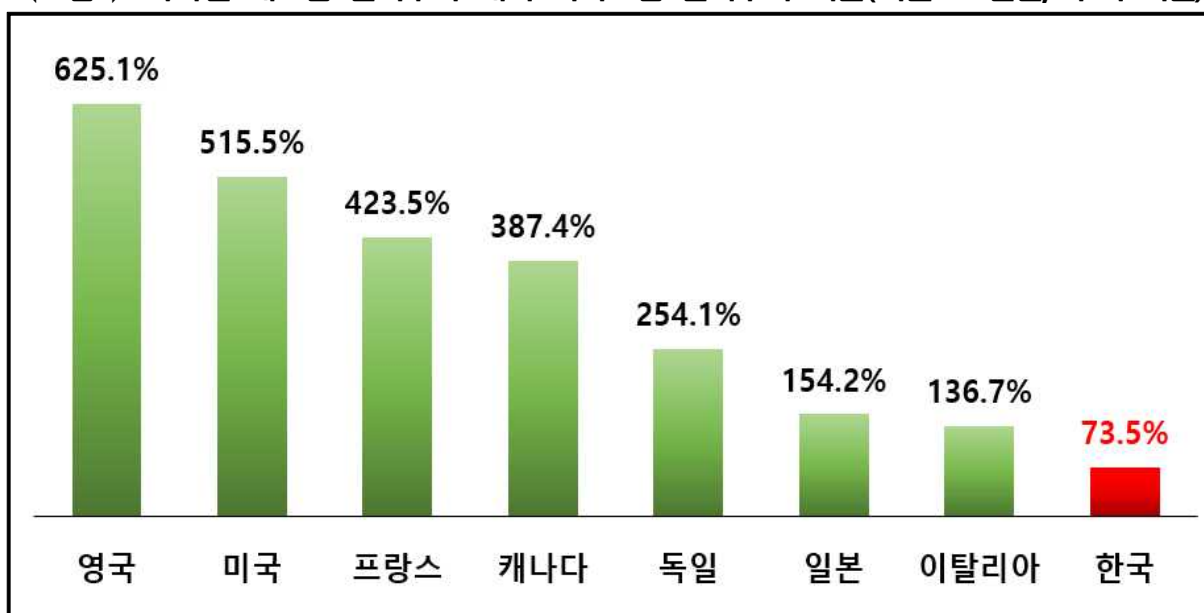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(경제통계시스템), OECD statistics

□ **(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)** 특히 G7 국가들은 모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,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설비투자가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. 이에 따라 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* 역시 우리(73.5%)가 모든 G7 국가보다 낮게 나타남.

* 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(%)
 = 서비스업 설비투자(누적 기준) ÷ 제조업 설비투자(누적 기준) × 100

- 지난 10년간 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은 우리나라가 73.5%로 영국(625.1%), 미국(515.5%), 프랑스(423.5%) 등 모든 G7 국가들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.
- 우리나라와 G7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(73.5%)가 동 비율이 100%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으며, 특히 영국(625.1%)보다 8.5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분석.

〈그림3〉 국가별 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(최근 10년간, 누적 기준)



주 : 독일, 프랑스, 캐나다, 일본, 이탈리아는 '13~'22년 누적 기준, 미국은 '12~'21년 누적 기준, 영국은 '11~'20년 누적 기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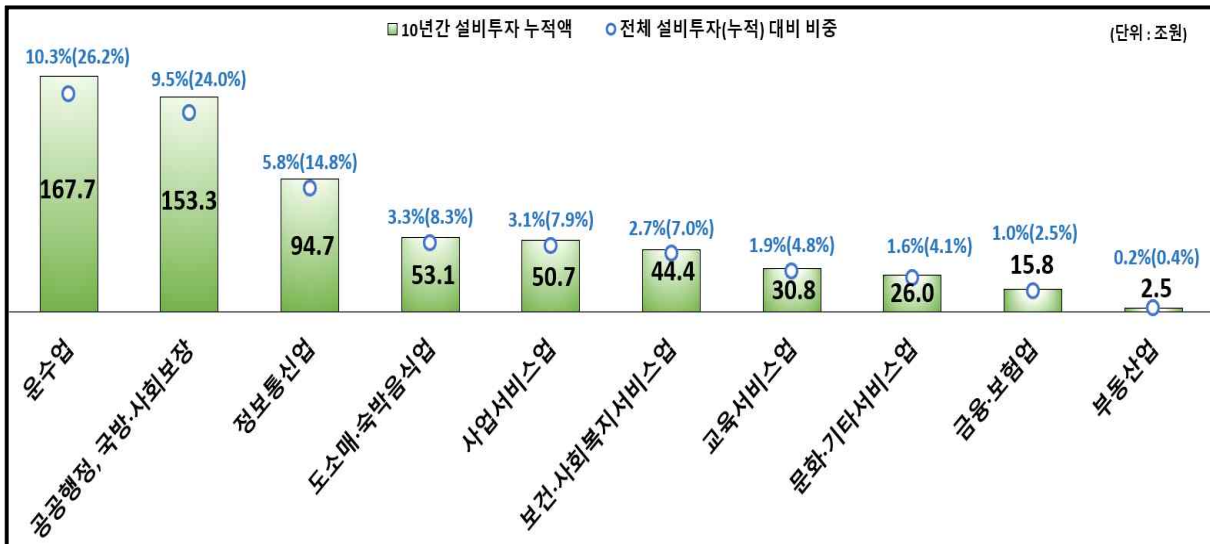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(경제통계시스템), OECD statistics

가 세부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현황

- **(업종별*)** 지난 10년간(2013~2022년)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항공여객, 화물 운송 같은 운수업(전체 설비투자 대비 10.3%)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.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·국방·사회보장(이하 ‘공공행정’)(9.5%), 정보통신업(5.8%), 도소매·숙박음식업(3.3%), 사업서비스업(3.1%) 順으로 집계.

* 韓銀 국민계정(경제활동별 설비투자)은 서비스업을 총 10개 세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.

〈그림4〉 10년간(2013~2022)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규모(누적) 및 전체 설비투자(누적) 대비 비중(%)



주 : 괄호안은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업 설비투자(누적) 대비 각 서비스업종별 설비투자 비중임.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경총 분석

- **(형태별*)** 서비스업의 투자 형태별로는, 지난 10년간** ‘운송장비’ 투자는 운수업(38.7%)과 공공행정(20.9%)에서, ‘기계류’ 투자는 정보통신업(7.0%)과 공공행정(5.6%)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.

* 한은 설비투자 통계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2가지 형태(운송장비, 기계류)로 구분됨.

** 경제활동별 자본재 형태별 설비투자는 2021년까지만 데이터가 공개(2024년 4월 24일 현재)되어 있음. 이에 ‘2013~2022년’이 아닌 ‘2012~2021년’ 누적 기준으로 산출

※ ‘운송장비’와 ‘기계류’ 설비투자의 각 서비스 업종별 비중은 전산업 ‘운송장비’ 투자와 전산업 ‘기계류’ 투자 대비 비중임.

- **(운송장비)** 전산업 운송장비 투자* 대비 세부 서비스 업종별 투자 비중은 운수업 38.7%, 공공행정 20.9%,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7.9%, 사업서비스업 5.0%, 정보통신업 3.3% 등 순으로 나타남.

* 운송장비 투자 : 전산업 387.0조원(100.0%), 제조업 61.5조원(15.9%), 서비스업 313.2조원(80.9%) 등

- **(기계류)** 전산업 기계류 투자* 대비 세부 서비스 업종별 투자 비중은 정보통신업 7.0%, 공공행정 5.6%, 의료보건·사회복지서비스업 3.3%, 사업서비스업 2.6%, 교육서비스업 2.2% 등 순으로 나타남.

* 기계류 투자 : 전산업 1,171.7조원(100.0%), 제조업 760.7조원(64.9%), 서비스업 310.9조원(26.5%) 등

<표1> 10년간(2012~2021년) 투자 형태별 서비스업 설비투자 규모(누적) 및 비중

세부 서비스업종	운송장비 투자액(조원)	전산업 운송장비 투자 대비 비중	기계류 투자액(조원)	전산업 기계류 투자 대비 비중
도소매·숙박음식업	30.4	7.9%	21.7	1.8%
운수업	149.8	38.7%	12.4	1.1%
금융·보험업	2.4	0.6%	13.9	1.2%
부동산업	1.1	0.3%	1.4	0.1%
정보통신업	12.9	3.3%	82.1	7.0%
사업서비스업	19.5	5.0%	31.0	2.6%
공공행정·국방·사회보장	81.0	20.9%	65.2	5.6%
교육서비스업	5.6	1.4%	25.6	2.2%
보건·사회복지서비스업	3.3	0.9%	38.7	3.3%
문화·기타서비스업	7.2	1.9%	19.1	1.6%
서비스업 전체	313.2	80.9%	310.9	26.5%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나 세부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국제비교

- 우리나라에서 설비투자가 많이 이뤄진 상위 6개 서비스 업종 중 도소매·숙박음식업(3.3%), 법무·회계·과학기술 같은 사업서비스업(3.1%),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2.7%)은 모든 G7 국가보다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

※ OECD statistics 통계를 활용하여 10년간 전체 설비투자(누적 기준) 대비 10년간 서비스업의 각 업종별 설비투자(누적 기준) 비중을 국제비교. 독일, 프랑스, 캐나다, 일본, 이탈리아는 '13~'22년 누적 기준, 미국은 '12~'21년 누적 기준, 영국은 '11~'20년 누적 기준임.

- **(운수업)** 전체 설비투자에서 운수업 설비투자의 비중은 우리나라(10.3%)가 독일(9.1%), 이탈리아(9.0%), 일본(7.3%), 미국(6.1%)보다는 높았으나, 영국(14.0%), 캐나다(12.1%), 프랑스(10.8%)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집계
- **(공공행정)** 공공행정의 설비투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9.5%로 영국(13.2%), 미국(11.6%)보다는 낮았으나, 나머지 5개국(캐나다, 이탈리아, 프랑스, 독일, 일본)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**(정보통신업)** 정보통신업의 설비투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5.84%로 이탈리아(5.80%), 독일(5.4%)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.
- **(도소매·숙박음식업)** 도소매·숙박음식업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3.3%로 이탈리아(11.8%), 일본(11.0%), 영국(9.9%) 등 모든 G7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**(사업서비스업*)** 법무·회계·과학기술 같은 사업서비스업 설비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3.1%로 독일(21.4%), 프랑스(19.2%), 영국(13.8%) 등 모든 G7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
* 사업서비스는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M)과 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N)의 합계
- **(의료보건·사회복지서비스업)** 의료보건·사회복지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2.7%로 독일(8.0%), 미국(7.1%), 일본(5.5%) 등 모든 G7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〈표2〉 주요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비중(전체 설비투자 대비, %) 국제비교

우리나라 서비스 설비투자 상위 6개 업종	업종별 설비투자 비중(전체 설비투자 대비, %, 10년간 누적 기준)
운수업	영국(14.0) > 캐나다(12.1) > 프랑스(10.8) > 한국(10.3) > 독일(9.1) > 이탈리아(9.0) > 일본(7.3) > 미국(6.1) 順
공공행정	영국(13.2) > 미국(11.6) > 한국(9.5) > 캐나다(8.4) > 이탈리아(5.7) > 프랑스(5.5) > 독일(4.9) > 일본(4.3) 順
정보통신업	미국(10.0) > 영국(9.3) > 캐나다(8.0) > 프랑스(6.3) > 일본(6.2) > 한국(5.84) > 이탈리아(5.80) > 독일(5.4) 順
도소매·숙박음식업	이탈리아(11.8) > 일본(11.0) > 영국(9.9) > 미국(9.5) > 캐나다(8.7) > 프랑스(8.1) > 독일(7.3) > 한국(3.3) 順
사업서비스업 (과학 기술 회계 법무 등)	독일(21.4) > 프랑스(19.2) > 영국(13.8) > 미국(11.6) > 일본(8.4) > 이탈리아(8.3) > 캐나다(4.1) > 한국(3.1) 順
의료보건·사회복지 서비스업	독일(8.0) > 미국(7.1) > 일본(5.5) > 이탈리아(3.7) > 캐나다(3.61) > 프랑스(3.57) > 영국(3.0) > 한국(2.7) 順

주1 : 서비스 세부 업종별 설비투자 비중

=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설비투자(누적 기준) ÷ 전체 설비투자(누적 기준) × 100

주2 : 독일, 프랑스, 캐나다, 일본, 이탈리아는 '13~'22년 누적 기준, 미국은 '12~'21년 누적 기준, 영국은 '11~'20년 누적 기준임.

자료 : OECD statistics, 경총 분석

⇒ 정보통신, 과학기술, 의료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나, 이들 분야가 포함된 정보통신업, 사업서비스업,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G7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남.

□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, 경쟁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강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

- **(협소한 내수시장·지정학적 리스크)**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내수* 규모는 2조 1,475억 달러로 G7 중 캐나다(1조 8,481억 달러)를 제외한 6개국보다 작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 경쟁국들보다 투자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움.

* 내수 규모는 소비(민간소비+정부소비)와 투자(총고정자본형성)의 합으로 계산. 민간소비, 정부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은 실질 가격, 실질 PPP 기준

※ 우리나라 대비 미국의 내수 규모는 10.3배, 일본은 2.5배, 독일은 1.8배, 영국은 1.4배 수준

※ 인구 수로 측정한 내수 규모는 우리나라가 G7 국가들 중 캐나다(3천 8백 92만 9천명)를 제외한 다른 6개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〈표3〉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내수 규모(억달러)와 비중(%)

구분	미국	일본	독일	영국	프랑스	이탈리아	캐나다	한국
내수 규모 (억달러)	221,472	52,901	39,556	30,649	29,857	23,596	18,481	21,475
각국 GDP 대비	104.3%	99.8%	94.0%	101.0%	101.5%	98.6%	102.4%	93.5%
한국 내수 대비	10.3배	2.5배	1.8배	1.4배	1.4배	1.1배	0.9배	-
인구 수 (백만명)	333.288	125.125	83.798	66.971	67.971	58.940	38.929	51.628

주 : 내수 규모는 소비(민간소비+정부소비)와 투자(총고정자본형성)의 합으로 계산. 민간소비, 정부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은 실질 가격, 실질 PPP 기준

자료 : OECD statistics, World Bank

- **(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서비스 시장 규제)** 최근 OECD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서비스무역제한지수(STRI)*에 따르면, 우리나라(0.231)는 G7국가들 중 이탈리아(0.242)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보다 서비스시장 규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

* 서비스무역제한지수(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) : 서비스산업 무역장벽의 정도를 시장진입 제한, 인력이동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~1까지 지수화한 것. 1에 가까울수록 무역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.

〈그림5〉 우리나라와 G7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국제비교(2022년)



주 :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전체 부문 평균(All sector average) 수치임.

자료 : OECD statistics, 경총 분석

- **(서비스업 투자 해외 유출 심화)** 지난 10년간(2013~2022) 국내 서비스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(FDI, 해외→국내)는 933.4억달러(누적 기준)에 불과한 반면, 우리나라에서 해외 서비스업으로 진출한 해외직접투자(ODI, 국내→해외)는 3,140.9억달러(서비스업 FDI 대비 3.4배)에 달함.

※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참고. 서비스업 해외직접투자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16개 대분류(E, G~U)의 합으로 산출함.

-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4%, 고용의 71%를 차지하는 산업* 으로서,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. 이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서비스업 관련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, 기업 지원 등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

*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3.8%(한국은행, 2023년 기준), 전체 취업자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71.2%(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2023년 기준)

〈끝〉

(참고)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개념

- 설비투자는 자동차, 항공기, 선박, 철도차량 등의 운송장비와 생산설비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류로 구성.
- 서비스업의 각 세부 업종별 설비투자 또한 운송장비와 기계류로 구성. 운송장비는 자동차, 항공기 등을 포함하고, 기계류는 일반기기, 기타기계장치 등을 포함. 한국은행에서는 각 세부 업종별 설비투자의 구체적인 투자 항목은 공개하고 있지 않음.

< 자본재 형태별 설비투자의 분류 >

구분	세분류	
설비투자	운송장비	자동차, 항공기, 선박, 철도차량 등
	기계류	일반기기, 전기전자기기, 정밀기기, 기타기계장치, 중축·역축·낙농축 등

자료 : 한국은행, 「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」

- OECD의 국민계정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국제표준산업분류(ISIC) 기준, 한국은행은 ISIC를 기초로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를 기준으로 추계결과를 작성·공표

< 서비스업 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와 국제표준산업분류(ISIC) >

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			국제표준산업분류(ISIC)	
국민계정 통계	대분류(15개)	중분류(38개)	대분류(15개)	중분류(46개)
도소매 및 숙박음식업	도매 및 소매업(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(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도매업·소매업 포함) ▪ 도매 및 상품 증개업 ▪ 소매업; 자동차 제외 ※ KSIC의 도매 및 소매업은 수리업을 제외 	도매 및 소매업(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동차, 모터사이클 도소매 및 수리업 ▪ 도매 및 상품 증개업 ▪ 소매업; 자동차 제외
	숙박 및 음식점업(I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숙박업 ▪ 음식점 및 주점업 	숙박 및 음식점업(I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숙박업 ▪ 음식점 및 주점업
운수업	운수 및 창고업(H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▪ 수상 운송업 ▪ 항공 운송업 ▪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▪ 택배업(우편업 제외) 	운수 및 창고업(H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▪ 수상 운송업 ▪ 항공 운송업 ▪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▪ 우편 및 택배업
금융 및 보험업	금융 및 보험업(K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융업 ▪ 보험 및 연금업 ▪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	금융 및 보험업(K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융업 ▪ 보험 및 연금업 ▪ 기타 금융 서비스업
부동산업	부동산업(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동산업 ▪ 부동산 임대업 등 	부동산 및 임대업(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동산업 ▪ 임대업

정보통신업	정보통신업(J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판업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(공영 우편업 포함)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	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J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판업 영상,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정보기술 및 기타 정보 관련 서비스업(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포함)
사업서비스업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M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(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, 광고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회사 내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포함)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사진 촬영 및 처리업, 수의업 등 포함) 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M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 및 시장조사업 사진촬영 및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
	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(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(고용 알선업, 여행사업,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, 보안시스템,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등 포함) 임대업(부동산 제외, 운송 장비 임대업, 자동차 임대업, 서적 임대업 등) 	사업 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(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알선업 여행사 및 기타예약 서비스업 조사 및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건물 및 조경 서비스업 사무실 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업
공공행정·국방 및 사회보장	공공행정·국방 및 사회보장(O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	공공행정·국방 및 사회보장(O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
교육서비스업	교육서비스업(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 서비스업 	교육서비스업(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 서비스업
의료·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Q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	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Q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(숙박업 제외)
문화 및 기타서비스업	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R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박물관, 식물원, 동물원, 사적지, 공연 예술가, 무용 및 음악단체 등 포함)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	예술, 연예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(R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드라마, 음악, 기타 예술 및 연예 서비스업 박물관, 사적지, 식물원 및 동물원 관리업 캠핑 및 베팅업 스포츠 관련 및 유원지,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
	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회 및 단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(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, 컴퓨터 및 통신 장비 수리업, 가전제품 수리업, 가정용품 수리업 등) 기타 개인 서비스업 	기타 서비스업(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회 및 단체 컴퓨터 및 개인, 가게 재화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

문화 및 기타서비스업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(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구내 고용활동* * 가구내 고용활동: 요리사, 가정부, 세탁부, 유모, 개인 비서, 운전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의미 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(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구 내 고용활동 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
	국제 및 외국기관(U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제 및 외국기관 	국제 및 외국기관(U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제 및 외국기관

주 : 한국은행 국민계정은 21개 대분류와 77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나, 표에는 서비스업 대분류와 중분류만을 기재
 자료 : 한국은행, 「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」 참조 재구성